

프랑스 高等教育과 敎員養成制度의 개혁

丁 奇 洙
(公州大 佛語佛文學科)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프랑스에서는 지금 엄청난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교육제도, 고등교육체제, 그리고 교원양성제도의 개혁 내용을 개괄한 뒤, 그것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과 우리 교육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을 것이다.

1. 머리말

프랑스에서는 지금 엄청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종전의 각종 교원양성기관을 모두 없애고 모든 초·중등 교원의 양성을 대학 소속 신설기관인 IUFM(교원양성대학원)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미래의 대학교수 양성을 목적으로 CIES(고등교직입문원)라는 기구도 창설하였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원양성체제와 임용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개혁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韓·佛 양국의 교원양성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교육제도 전반을, 그리고 특히 고등교육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

2. 敎育制度의 몇 가지 特徵

사실 두 나라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많은 示唆를 얻게 된다. 예컨대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學士학위를 얻기까지는 모두 10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밖에 없는데, 프랑스 학생들은 최소한 다섯 번(중2, 중4, 고1, 고3, 대2말)이나 가질 수가 있다. 이는 학생개개인의 지능과 적성에 따라 학문과 직업에 관한 진로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지도를 위해 ONISEP(국립교육·직업정보처)라는 교육부 산하의 전문기구가 있어 풍부한 자료의 발간 등 모든 뒷받침을 다

해주고 있다.

프랑스 고교생들은 바칼로레아(고등교육전학 자격시험)에 합격만 하면 누구나 대학에 등록할 수가 있지만, 대학의 첫 2년 과정인 DEUG라는 학위를 2년만에 취득하는 학생수는 50%도 채 안 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한 번 들어가기만 하면 4년간 유급도 탈락도 없이 학사가 되어 나간다. 프랑스에서는 국민학교에서부터 유급제도를 잘 활용하여 교육의 질적 유지와 학력의 균등화를 이룩하고 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에서 각 학년의 유급률은 10%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유급이 없는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날림공사로 규격 미달의 불량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한 나라의 大學入試 제도는 그 나라의 학교교육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학력고사는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만을 강요하는 選多型인 데 비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사고와 표현능력을 길러주는 논문식 시험(학과목마다 세 문제 중 하나를 골라 3~4시간에 걸쳐 논문을 쓴다)이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는 시험준비교육이 곧 정상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

위의 같은 몇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두 나라 학생들의 두뇌 형성과 지적 수준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3. 高等教育의 體制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이라고 불리지만, 프랑스에서는 '대학', 즉 Université 외에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 즉, 2년제의 단기기술교육기관인 STS와 IUT, 국가고급간부양성소인 '그랑드 에콜'과 그 예비 학교인 CPGE, 5년제의 건축학교, 그밖에 2~4년제의 각종 전문학교(간호원 등 의료보조원, 사회봉사원, 정보, 통신, 관광 등)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Université 만을 '대학'이라고 부를 것이다.

대학에는 바칼로레아 합격자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학교에는 경쟁시험 또는

기타 형식의 전형을 거쳐야만 한다. 예컨대 IUT의 경쟁률은 평균 5:1이지만 인기학과는 10:1도 넘으며, 특히 그랑드 에콜에의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대학에는 일반대학 외에 '전강대학'(의·치·약학과)이 있다. 일반대학은 세 과정으로 나뉜다. 제 1기 과정은 2년이고 DEUG(대학일반교육수료증)라는 학위가 수여된다. 제 2기 과정도 2년이지만 각각 1년씩의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제 3기 과정은 1년간의 DEA(박사논문작성자격증) 취득기간을 포함하여 5년 또는 그 이상의 박사과정이다.

프랑스 고등교육의 큰 특색인 그랑드 에콜에 관해서 特記해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프랑스에는 약 300개의 공·사립 그랑드 에콜이 있는데, 지스카르 뱌스탕 전 대통령, 시락 파리시장(전 국무총리) 등을 배출한 ENA(국립행정학교: 국무총리 소속), 콩피두 전 대통령, 사르트르 등이 다닌 ENS(고등사범학교: 교육부 소속), 나폴레옹이 창설한 Ecole Polytechnique(이공과학교: 국방부 소속) 등이 그것이다. 그랑드 에콜에는 치열한 경쟁시험에 합격한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입학이 허가된다. 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수한 바칼로레아 합격자들만을 엄선하여 받아들이는 CPGE에서 2~4년간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던 과학 및 상업 계열의 CPGE 학생들의 70~80%는 300개의 기사(엔지니어) 또는 상업학교들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가지만, ENS나 IEP(정치연구원) 외에 갈 길이 없는 문과계 CPGE 학생들의 합격률은 8%밖에 안 된다.

공립의 그랑드 에콜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공무원처럼 월급(약 6천 프랑: 100만 원 정도)을 받으며, 졸업 후에도 평생 명함에 '××학교 출신'이라는 칭호가 따른다. 그랑드 에콜은 고급행정관리, 미래의 정치가, 대기업 책임자 등의 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것으로, 그 졸업자들이 쉽사리 높은 자리에 취직이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프랑스의 수천 주요 기업의 사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 중 3/4이 그랑드 에콜 출신일 뿐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랑드 에콜 출신의 후계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대개 그랑드 에콜이나 IUT 등 전문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일반대학에 간다. 이것만 보더라도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실용적인 교육, 즉 技術·職業專門敎育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 프랑스 大學의 變化 : 대학교육의 職業化 추세

197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팽창과 고등교육에의 수요 증대 및 바칼로레아 합격자 수의 급증은 대학생 수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왔고 대학제도의 빈번한 개혁을 필요케 했다.

프랑스 고등교육의 기능은 전통적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었다. 즉, 대학(의학 및 법학대학 제외)은 직업 아닌 일반 교양과 연구를 지향하였고 그랑드 에콜은 전문직업에 종사할 미래의 국가 고급간부를 양성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부터 사정이 달라져 대학교육의 직업화 추세가 나타났다. 즉, 그랑드 에콜의 학생 정원수가 너무 제한되어 있으므로 노동시장, 즉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이 교육의 폭을 넓혀 기술·직업 교육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한 예로서 IUT를 들 수 있다. 1966년 대학 소속으로 창설된 IUT는 현재 68개교에 14만 2천 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단계의 고등기술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5년간에 IUT를 더 증설하여 현재의 입학 정원수의 약 70%(5만 명)를 증원키로 하였다. 또 프랑스는 최근, 기사(엔지니어)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대학 내에 학과를 신설하여 기사자격증을 주기로 하였다. 현재 24개의 대학에서 이를 위해 DEUG, DUT(IUT 졸업증), BTS(STS 졸업증) 등의 학위 소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학업 연한은 3년이다.

그러던 이제 大學敎育의 職業化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DEUG를 준비하는 대학의 제 1기 과정 학생수는 현재 프랑스 대학 총 학생수의 약 40%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들의 약 50%밖에는 2년 후에 DEUG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바칼로

레아 합격자들을 또 다시 선발하여 대학에 받아들여자는 개혁안이 때때로 제출되었지만 번번이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늘날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학교육이 오늘날처럼 세 과정으로 나뉘어진 것은 대학생수의 폭발에 따라 단행된 1966년의 개혁에 의한 것인데, 이는 학제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각 과정을 마치면 졸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종전의 예과 1년을 폐지하고 2년의 제 1기 과정을 창설하여 DUEL(문과), DUES(이과), DEJG(법학), DEEG(경제학) 등의 학위를 취득케 했다.

그러나 이 개혁의 취지와는 달리 위 학위들이 너무 단일 전공적이고 아카데미하여 제 2기 과정(학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의 첫 단계같이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1973년의 개혁에서 DUEL과 DUES는 폐지되고 DEUG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여러 전공분야를 포함하는 진로결정의 일반교육 과정으로서 제 2기 과정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사회에 나가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혁에서도 그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뒷받침되지 못했으므로 1984년의 대학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이 DEUG 과정의 다양화와 직업화가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개혁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대학의 제 1기 과정내에 明示의으로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DEUST(대학 과학·기술교육 수료증)라는 단기과정을 창설한 일이다. 즉, 이 DEUST는 취업과 상위과정 진학에 다 같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취득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직업화는 제 2기 과정에서도 이루어졌다. '70년대 초부터 직업적 '완성' 교육으로서의 학사 및 석사학위 과정이 창설되었다. AES(경제·사회 행정), LEA(응용 외국어), MASS(사회과학, 응용수학) 학사 및 석사가 곧 그것이다. 역시 '70년대에 창설된 MST(과학·기술 석사), MSG(과학·관리 석사), MIAGE(관리 응용정보처리법 석사) 등 학위는 정말 독창적이고 전망이 밝은 '완성'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DEUG 학위의 소지자들로부터 선발되는 이들 석사학위 과정은 2년간의 연속 과정으로서 도

중에 학사학위는 수여하지 않는다.

직업화 추세는 제 3기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1975년에는 DESS(고등전문교육수료증) 학위가 창설되었다. 이는 연구에 의해 직업생활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석사 후 1년간의 교육으로 수여된다. 1985년에는 Magistère라는 학위가 창설되었다. 이는 DEUG 후 3년 과정으로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학이 허가되며, 이 학위는 그랑드 에콜의 졸업장과도 겨룰 수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직업화가 잘 이루어진 프랑스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수료증 또는 졸업장)는 그것이 곧 자격증이자 면허장이다. 프랑스에서도 일생의 직업은 더욱 더 學位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대학은 이제 '실업자의 공장'이 아니다.

5. 敎員養成制度의 改革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 정부는 최근 교원양성 제도의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즉, 프랑스는 자 學區(전국이 29개 학구로 구성됨)마다 대학 소속으로 1개씩의 IUFM을 창설하여 모든 초·중등 교원의 양성을 전담케 한 것이다. 이는 교원 양성에 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뀐 데 따라 교원 후보생들에게 교과목에 대한 고도의 지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직업교육을 주기 위한 것이다.

IUFM이 창설됨에 따라 종전에 있었던 각종 교원양성기관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된다. 즉, 초등교원(유아학교, 즉 유치원과 국민학교 교사) 양성소이던 사범학교, '카페스'(CAPES: 일반 중등교원 자격증)의 이론시험 합격자들에게 실습교육을 통해 카페스의 실제 시험준비를 시키던 CPR, '카페트'(CAPET: 기술교육 교원자격증)교사 양성소 CFPET, 그리고 CAPLP2(직업 고등학교 2급 교원자격증)교사 양성소 ENNA 등이 그것이다.

IUFM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대학에 소속되며, 반드시 대학이 있는 도시에 세우기로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세 개의 IUFM이 1990학년도 새 학기에 세 도시, 즉 북부의 릴, 동부의 랭스, 남부의 그르노블에 창설되었고 이듬해에 또 26개가 설립됨

으로서 현재 프랑스의 29개 學區 모두에 IUFM이 개설되어 있다. IUFM은 과학기술평의회와 보좌를 받는 이사회에 의해서 관리되며, 장관이 선임한 원장의 지휘를 받는다(장관은 IUFM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회가 제출한 세 사람의 명단에서 뽑는다).

IUFM은 2년 과정인데, 그 동안에 미래의 교원들은 입학지망 때 각자가 선택한 데 따라 CAPE(초등교원자격증), CAPES, CAPET, CAPLP 2 등의 자격증 중에서 하나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무슨 자격증을 목표로 하든지 간에 제 1학년 입학자격은 모두 다 똑같이 학사학위(또는 동등 자격)이다. 입학은 서류전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을 거칠 수도 있다.

IUFM의 제 1학년은 주로 다음 해에 있을 교원채용시험 준비에 바쳐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교과목의 공부인데 이는 소속 대학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직업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제도에 관한 일반 교육, 수업 참관 및 실습 등이 그것으로, 거기에 약 1/4의 시간이 바쳐진다. 그 밖에도 또 모든 교사 후보생들에게 공통된 교육도 주어진다.

교원채용시험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는데 3월의 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제 2차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실시되는 구두시험 및 실제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이는 공개경쟁시험이므로 IUFM의 제 1학년 수료자 외에도 학사학위(기타 동등 학위)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원 채용시험은 學區 수준에서 실시되고 합격자는 합격한 學區內의 道 중 하나에 배치된다. 중등교원 채용시험은 국가시험으로서 임관 후 국가 수준에서 배치된다. 배치는 제 2학년 말에 결정된다.

교원채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제 2학년 때 수습교사로 임명되어 약 6,800프랑의 월급을 받으면서 1년간 직업교육을 완성하는데, 그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비정된 학교 교실에서 매주 4~6시간씩 수업실습을 하는 일이다. 직업고등학교의 일반교육 교사후보생들은 기술 및 직업교육 교사후보생들과 마찬가지로 IUFM 제 2학년 때 6~12주간 동안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研修를

해야 한다. 임관 후 보수는 초·중등 교원이 다 똑같은데, 1991년에는 초봉 월급이 7,335프랑이고, 최종급(특호봉)이 15,682프랑이었다.

IUFM에서 준비시키는 교원자격증은 초등교원의 CAPE, 중등교원의 CAPES, CAPET, CAP-EP(체육교원자격증), CAPLP2가 전부이다.

CAPE 교사는 국민학교와 유아학교에서 가르치고 주당 의무수업시간은 27시간이다. 개혁 전 초등교원은 DEUG 수준에서 모집되어 2년간 사범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번 개혁으로 초등교원의 수준은 1년 더 높아진 셈이다.

CAPES 교사는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주당 의무수업은 18시간이다(미술과 음악은 20시간). CAPET 교사는 중학교와 기술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주당 18시간이다. CAPET 시험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기사자격증 소유자 외에도 5년간 간부로서 전문직업에 종사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CAPEPS 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의무시간은 20시간인데, 이의 응시자격은 체육, 과학·기술 학사학위와 함께 구조·구급 면허장이 요구된다. CAPLP2 교사는 직업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의무시간은 일반 및 이문교육은 주당 18시간, 실제 교육은 23시간인데, 이의 응시자격은 CAPET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 또는 기사자격증 소유자 외에도 5년간 간부로서 전문직업에 종사한 경력자이다. 그밖에 농업고등학교 교원의 양성은 IFMEA라는 별도 기구에서 곧 실시될 예정이다.

끝으로 중등교원에는 위에서 말한 여러 종류의 교원 그룹보다도 더 높은 직급의 敎員團이 있는데, '아그레제'(Agrégé)라고 불린다. 이는 '아그레가시옹'(Agrégation)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연수를 받은 후 임관된 교원이다. 아그레가시옹 응시자격은 석사학위(또는 그와 동등 학위)의 소지자이다. 그러나 아그레가시옹 시험준비는 IUFM에서는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대학에서 실시되는데, 아그레제가 되는 최선의 길은 고등사범학교(ENS)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그레제는 고등학교의 최종학년에서 가르치지만, 그보다도 더 흔히 CP-GE, BTS, IUT, 대학의 DEUG 과정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친다. 주당 의무시간은 문학, 과

학, 기술은 15시간이고 미술, 체육은 17시간이다. 월급도 다른 직급의 교원보다 높은데, 1991년 파리에서 초봉이 8,000프랑, 최종 특호봉이 17,550프랑이었다.

위에서 본 프랑스의 새로운 교원양성임용제도를 圖式化해 보면, "학사학위(또는 동등 자격)+IUFM 제 1학년→교원채용시험합격+IUFM 제 2학년=수습교사→임관·배치"이다. 이처럼 프랑스 초·중등 교원의 기본자격은 유아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다같이 '학사학위+2년'이 된 셈인데, 이는 프랑스 學制上으로는 '바칼로레아+5년'으로서 '석사학위+1년' 또는 DEA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것이다. 이를 우리 제도와 비교해 볼 때, 프랑스가 국민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그리고 이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結論 및 提案

이상에서 본 프랑스의 교육체제와 대학의 개혁, 그리고 새로운 교원양성 제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우리나라도 교원양성 임용제도와 함께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던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말인가? 한·프 양국 제도의 비교가 주는 수많은 시사點들로부터 필자는 여기에 특히 두 가지만 강조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의 경직된 學制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고, 둘째는 우리의 어리석은 교원양성 임용제도를 合理化하는 일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의 學制는 매우 유연하다. 즉,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게 마련되어 있으며, 한 교육과정 중 언제라도 진로를 선택·수정·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는 진로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학의 경우, 바칼로레아 합격자면 원칙적으로 어떤 학과에도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제 1기 과정(DEUG)의 첫 해를 마치고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에는 진로를 바꿀 수 있는데, 이 경우 같

은 계열 내에서는 물론이지만 전혀 다른 계열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의 DEUG 학위를 취득한 뒤 또 하나의 다른 DEUG를 취득할 수조차도 있다. LEUG를 취득한 뒤에는 각 1년씩의 학사·석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진학 대신 취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DEUG 대신 DEUST 과정을 밟는다), 소정의 전형을 거쳐 학사과정 없이 직접 MST, MSG, MIAGE 등과 같은 취업을 위한 석사과정(각 2년) 또는 마지스데르(Magistère) 과정에 진학할 수도 있고 IUT 제 2학년에 편입할 수도 있으며(마찬가지로 IUT 졸업자는 DEUG 제 1 또는 제 2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고 대학에 편입될 수 있다), 경쟁시험을 거쳐 각종 그랑드 에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우리 학생들은 한번 어떤 학과에 들어가면, 사전에 학과와 직업에 대한 충분한 진로지도도를 받지 못한 탓으로 뒤늦게 아무리 자기가 학과 선택을 잘못했음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꼬박 4년간을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학문에 대한 아무런 동기도 열의도 희망도 없이 그저 졸업장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졸업장 역시 유급이나 탈락도 거의 없으므로, 말하자면 '자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도 교육인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인적·물적 손실인가!

이같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학은 신입생을 10여 개의 계열별로 모집하고, 현재의 4년간을 2년씩의 두 과정으로 나누어 예과부와 학부(즉, 학사과정)로 함으로써 제 1기 과정이 일생의 진로를 모색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첫 과정을 마친 뒤 혹은 학사과정으로 진학하고 혹은 사회로 나가 취업하고 혹은 전문대학 등의 제 2학년에도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교원양성 임용제도는 무질서하고 불합리하다. 즉, 과다한 공·사립 양성기관들의 문란함(교대, 교원대, 사대, 일반대), 교원자격증의 대량 발급과 그와는 별도의 채용시험 및 극히 제한된 인원의 임용, 공·사립 학

교 교원채용 방법의 상이함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교원양성기관들은 그 기능이 교적과목을 설강한 일반대학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같은 이중·삼중 구조는 막대한 제력의 낭비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와 국제화 시대에 있어 제 2세 國民教育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는 보다 우수한 교원, 즉 고도의 교양과 심오한 전문지식을 아울러 갖춘 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고교졸업생들에게 敎大다 師大다 하는 제한된 목적기관에서 곧바로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나 관·검사 후보생들에게는 상당 기간의 예과 또는 研修·試補 과정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교원 후보생들에게는 고작해서 4~5주간의 실습밖에 없는데, 내일의 조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원의 역할이 의사나 관·검사의 그것보다 결코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양성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초등교원과 마찬가지로 中等敎員의 양성도 전적으로 國家가 책임질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지에서 필자는 현재의 교원 양성기관을 모두 없애고 그 대신 대학 소속으로 IUFM 같은 종합적인 교원양성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대학 제 1기 과정(2년) 수료자들(또는 전문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뽑아 1년간을 수업료 면제, 장학금 수여 등의 혜택을 주면서 교육시킨 뒤, 교원채용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들은 수습교사로 임명하여 월급을 주고, 1년간을 더 이론과 실제의 교육을 시켜 정식교사로 임명·배치한다. 불합격자는 한번 더 응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대학에서 제 2기 과정(학사학위)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도 반드시 그들 중에서만 채용하고 그들의 보수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양성 임용제도의 합리화, 우수교원의 확보, 교원의 자질 향상, 학교교육의 평준화, 교사 채용에 따르는 비리 추방 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